"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안녕히 계세요'하고 끝내면 됩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으면 '당신이 옳아요'하면 됩니다.

내 의견을 고집하면서 같이 살겠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다투면서 살면 됩니다. 찌그럭거리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찌그럭거리며 살더라도
찌그럭거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되지는 않아요.
잔소리 하기도 하고
잔소리 듣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짜증을 받아주기도 하고
'인생이란 그런 거다.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투며 살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 옳아요'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됩니다.